800대 동시 주차… 국내 최대규모

강진 화물 공영차고지 6월 준공

광양 컨부두~목포·완도항 잇는 물류운송 요충지

편의시설·물류창고 등 갖춰 복합 화물터미널 기능

국내최대 규모의 화물 공영차고지가 강진에 6월말 들어선다.

강진군은 "효율적인 물류체계 구축을 통한 물류비 절감과 화물 운송사업 활성화는 물론 운수 종사자에 대한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조성중인 강진 화물차 공영차고지가 6월말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009년 7월 시작된 강진 화물차 공영차고지는 현재까지 110억 원이 투입돼 총면적 14만8281㎡(4만4899평)에 대형 화물차 800대가 동시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비롯해 17개의 사무실이 들어선 관리동, 18개의 창고가 들어선 물류동이 함께 들어선다. 차고지가 위치한 성전면은 교통 요충지로서 광양 컨테이너부두로의 이동 편리와 목포, 완도항을 인근에 두고 있다.

특히 4월께 개통예정인 목포~광양간 고속도로의 성전IC 출입구에 위치해 있어 물류운송의 최적지로 꼽힌다.

■강진 화물 공영 차고지 위치도

이 곳은 공영차고지 뿐만 아니라 운수종사자를 위한 식당과 휴게실, 수면실, 샤워장 등 각종 편의시설과 사무실, 물류창고 등 화물터미널 기능까지 갖춘 복합시설로 조성되어 운송사업장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진군 김영진 안전관리팀장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완공되면 화물자동차 등록대수의 증가와 활발한 물류활동으로 수입증가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8월 완공된 차고지와 건축물 등 일부시설인 관리동과 물류동은 전남 화물자동차 운송협회에 관리위탁계약체결로 사무실 10개, 물류창고 1개가 임대운영 중에 있다.

강진군이 직영하는 화물 차고지는 현재까지 1300대가 이용계약을 체결했으며, 차량 수가 적은 영세업체들은 97㎡(29평)의 공동 사무실을 연간 20만 원의 저렴한 이용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휴게실·샤워장 등 편의시설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

지난 2009년 7월 착공해 오는 6월말 완공예정인 국내 최대규모의 강진 화물 공영차고지 전경.

백암산 상왕봉~까치봉, 장성새재~상왕봉

내장산국립공원 산불예방 입산 통제

내장산국립공원 백암사무소(소장 박갑동)는 봄철 건조기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조심기간을 다음달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시행한다. 이 기간 중에는 전체 탐방로중 산불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백양사지구(백양사~백학봉~상왕봉~사자봉 등)와 남창지구(전대수련원~갓바위 등)의 4개 구간은 개방한다.

하지만 백암산(상왕봉)~까치봉 구간과 장성새재~상왕봉 구간은 산불예방을 위해 통제(2월 16 ~ 4월 30일)한다.

국립공원은 연중 흡연과 인화물질 반입이 금지되고 있다.

특히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산불조심 기간에는 '산불 집중관리 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순찰 인력이 배치돼 통제구역 무단출입, 흡연행위, 인화물질 반입, 불법취사, 모닥불이나 논두렁 소각행위 등에 대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탐방객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정남진 편백숲 관광객들에 인기

설 연휴 8000명 방문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를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장흥군은 "설 연휴기간 동안 억불산 편백숲을 최대로 활용한 편백숲 우드랜드와 편백 소금집, 전남도 목공예센터에 8000명의 관광객들이 찾아 성황을 이뤘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올해 초 개장한 '편백 치유의 숲 말레길'(무장애데크)은 가족단위 관광객들의 등산코스로 인기를 누렸으며, '편백 소금집'도 명절 연휴기간 24시간 운영으로 많은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해 인기를 끌었다.

우드랜드는 지난해 휴양, 치유, 교육, 체험 등을 목적으로 60여만 명의 탐방객이 찾았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친환경농 선도 '녹색인재' 양성

전남농기원 유기농 구축

올 농업인 교육계획 확정

전남도 농업기술원은 최근 2012년 농업인 교육계획을 확정하고 친환경 농업을 선도할 핵심리더 양성에 박차를 가한다.

올해 농업인 교육은 친환경 농업을 선도할 녹색인재 양성을 목표로 ▲유기농업 기반구축을 위한 전문기술 교육 22과정(1370명) ▲전자상거래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정보화 교육 8과정(200명) ▲귀농·귀촌 교육 7과정(270명) ▲농업기계 및 순회수리 교육 17과정(985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장기과정 교육으로 전남 생명농업대학과 전남 마이스터(미래농업)대학 5과정(100명) 등 총 7분야 59과정(292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전문기술 교육'은 ▲유기농업 기반구축을 위해 유기농 벼·채소, 유기농기능사 취득 등 6과정 ▲FTA 및 기후변화에 대응 미래 신성장 웰빙 틈새작목 관련 생약초, 아열대 채소 등 8과정 ▲농업소득자원 개발을 위해 장류·과채류 가공(여성농업인 창업) 등 3과정이 운영된다.

한편 교육일정은 전남도 농업기술원 홈페이지(www.jares.go.kr)에서 확인한 후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교육시작 10일전 까지 신청하면 된다. 문의(061-330 - 2724)

/송기동기자 song@

농어업정책 참여 민간 농정기구 출범

'나주 농어업인 회의소' 내달 8일 창립 총회

나주시가 정부 시범사업으로 추진중인 '나주시 농어업회의소'가 2월 8일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연다.

이날 창립총회는 나주 종합스포츠파크내 다목적체육관에서 전남도 및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 시장, 중앙 및 관내 농업기관단체장, 회원 농·어업인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이날 창립총회는 나주시와 농어업회의소간 MOU(업무협약) 체결에 이어 창립기념식과 함께 공식 발족,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전북 진안에 이어 2번째로 창립총회를 갖게 되는 나주시농어업회의소는 지역단위의 농업 관련단체와 농어업 인들을 참여대상으로 지역적 합의를 통해 민주성과 대표성, 전문성을 확보하고 농어업 인을 대표하는 대의기구로서 위상을 갖게 된다.

또한 지자체와 함께 농정 기획단계에서부터 실행, 평가 과정에 이르는 농정 전반에 대한 협의 및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는 농정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나주시는 시범사업이 결정된 이후 행정과 시의회, 농협, 농업기관 및 농업단체 대표 등이 참여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데 이어 지난해 7월에는 전국 최초로 농어업회의소 지원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이후 1200여 명의 개인회원과 47개 단체회원을 모집하는 등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원과 나주시, 나주시의회, (사)국민농업포럼의 협조를 받아 사전준비를 착실히 해왔다.

나주시 관계자는 "한·미, 한 · EU FTA, 농업 개방정책 등 대내외적 환경 변화로 농업농촌의 상황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며 "농어업회의소가 농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한목소리를 내는 대의기구로 자리매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정칠현기자 chjung@

전 북

여행사 '정·관계 로비' 수사 확대

전북경찰, 공무원 등 30명 1차조사 마무리

도내 한 여행사 대표가 정 · 관계 인사를 대상으로 한 로비<2012년 1월 26일 11면>에 대해서 수사중인 전북경찰이 관련 공무원과 정치인 등에 대한 1차 조사를 마무리했다.

전북 지방경찰청은 "여행사 선정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 선물 명단에 포함된 공무원 등 1차 조사 대상 30여명에 대해 조사를 마쳤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에는 여행사 대표 유모씨로부터 선물을 건네 받은 공무원과 도내 유력 정치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유씨의 사무실에서 압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삭제된 파일을 복구해 또 다른 '리베이트 리스트'가 존재하는지 분석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 관계자는 "공무원과 정치인 등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소환해 조사했다"며 "1차 소환 조사를 바탕으로 뇌물수수 혐의가 의심되는 공무원 등을 재조사하고, 1차 소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관련자들도 추가로 소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6일 여행사 대표 유씨의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전 · 현직 국회의원과 도의원, 전북도청 · 교육청 공무원, 경찰 간부 등에게 선물과 현금을 건넨 내역과 명단이 담긴 자료를 확보했다. 이 자료에는 도내 정 · 관계 인사 400여명의 이름과 날짜, 상품명 등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올해도 건강하세요"

순창군 동계면 주민들이 지난 27일 주민 종합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신년 합동세배를 하고 있다. 순창군 동계면 바르게살기협의회(회장 김주곤) 주관으로 마련된 이날 신년 인사회는 60~70대 노인들이 80대 어르신들에게 세배를 하고 면 기관단체장과 이장단 등이 잇따라 합동세배를 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귀농·귀촌 남원으로 오세요

市, 전원마을 조성 등

농촌인구 늘리기 전개

남원시는 앞으로 '농촌지역 거주인구 10% 늘리기 범시민 운동'을 전개한다.

시는 도시권의 은퇴자들이 지향하는 쾌적한 전원 공간 확보를 위해 도시민 농촌유치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키로 했다.

이를 위해 '귀농·귀촌 지원조례'를 전면 재검토해 인구 늘리기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완할 방침이다.

시는 2월부터 전담부서를 신설해 농촌이주를 고민하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쉽게 상담할 수 있는 창구를 단일화할 계획이다.

11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남원시 도시민 유치협의회를 발족하고 귀농·귀촌인의 네트워크 교류, 정보공유추진, 도시민 유치를 위한 상담, 맞춤형 컨설팅 등을 하게 된다.

남원과 연고가 있는 출향인들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프로그램 운영과 읍면별 도시민유치 목표를 설정해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준다. 시는 올해부터 읍면당 1마을에 20가구 이상의 전원마을을 조성할 수 있도록 10억~3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남원시 인구는 1980년대 15만명, 1990년 초반 12만4000명을 유지했으나 농촌인구의 감소추세에 따라 현재는 8만7000여명을 유지하고 있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KTX정읍역사 신축 재검토 반발 확산

국회의원·시의회 등 정치권서도 지하차도 개설 촉구

한국철도시설공단의 '호남고속철도(KTX) 정읍역사' 신축 재검토 방침에 대해 정읍시와 지역 정치권의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정읍시의회는 지난 27일 임시회를 열어 'KTX고속철도 정읍선상역사 신축 및 중앙로 지하차도 개설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이날 철도시설공단을 방문해 결의문을 전달하고 정부 관계부처에도 발송했다.

시의회는 "새 역사와 지하차도는 정읍의 비전을 일구는 최우선 성장동력 사업"이라며 국토의 균형발전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시민과 약속한 대로 건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생기 시장도 지난 27일 김완주 도지사를 면담, 2월 1일 열리는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에 안건으로 올리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이어 31일에는 유성엽 국회의원, 시의회 의장과 국토해양부 장관을 만나 역사를 원안대로 건립하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정읍시는 지난 20일 지역사회단체 대표와 공동 회견을 열어 원안추진을 촉구한 바 있다.

김영길 부시장은 "공단이 KTX 정읍역사 재검토 계획을 포기할 때까지 지역 정치권, 시민과 함께 최대의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순창군, 혈당강하 기능성 고추 '원기 1호' 집중 육성

순창군은 올해 혈당강하 효과가 있는 기능성고추 '원기 1호'를 특화작목으로 집중 육성한다.

또 이를 활용한 기능성 제품을 생산해 국민 혈당은 낮추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2중효과를 얻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농촌진흥청 원예특작과학원에서 육성한 기능성 고추 '원기 1호'는 고춧잎에 혈당상승을 억제하는 AGI(혈당강하 효소)의 활성이 일반 고추보다 4배정도 높아 혈당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 순창군은 지난해 5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종자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확보해 이를 재배하고 상품을 생산·판매할 수 있게 됐다.

군은 통상실시권을 농업회사법인 황금나무에 사용허가를 실시하고 시범·보급해 고춧잎을 이용한 기능성 장류상품인 청국장, 된장, 낫또 등의 개발을 완료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뉴스 브리핑

道농기원 안개꽃 신품종 '화이트팜' 개발

전북도농업기술원은 최근 6년여의 연구 끝에 밝은 백색의 겹꽃으로 가지 벌어짐이 작고 수확이 더욱 쉬운 안개꽃의 신품종인 '화이트팜'을 개발했다.

이 품종은 꽃잎이 밝고 깨끗한데다 안개꽃에 피해를 많이 주는 '흰가루병'에 강하고 줄기에 끈적임이 없어 수확도 쉽다.

전북 농기원 관계자는 "최근 국립종자원에 품종등록 심사를 위한 신품종보호 출원을 했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0418@

전주시 맑은물사업소 지방상수도 최우수 선정

전주시 맑은물사업소는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제9회 지방공기업의 날' 기념행사에서 지방상수도 부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특별상을 수상했다.

맑은물 사업소는 2011년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결과 리더십·전략, 경영효율화, 주요사업 성과, 정책준수, 고객만족도 등 8개 분야의 18개 지표에서 맑은물사업소가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정읍농기센터 화학비료 줄이기 운동 전개

정읍시 농업기술센터는 주요 작물 재배지에 대한 정밀 토양검정 사업을 통해 화학비료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토양검정, 식물체, 축분 액비, 중금속 분석과 농업용수의 수질분석과 농산물의 농약 잔류검사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분석을 원하는 농가는 시료를 채취해 정읍시 농업기술센터 자원개발과 농업환경 종합분석실(063-539-6306) 의뢰하면 된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방송인 '이다도시의 샹송이야기' 성황

방송인 '이다도시의 샹송 이야기'가 지난 28일 김제 문화예술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공연은 방송인 이다도시와 바리톤 겸 주한 프랑스학교 음악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샹송가수 고한승이 대화를 나누며 샹송 15곡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와 프랑스 문화, 성공사례를 들려줬다.

김제문화예술회관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새롭게 다가서기 위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수준 높은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매월 2~3회 찾아가 시민을 위한 '문화 비타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선기자 hnews@